

데이터로 본 서울시 의료서비스산업의 특징과 전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창의시정연구본부
조달호(연구위원 · dhcho@sdi.re.kr)
이춘화(연구위원 · lch128@sdi.re.kr)

I. 개인사업체 위주로 의료서비스 공급

1. 의료서비스산업은 공급 독점 형태

- 의료서비스산업은 의료 종사자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산업
 - 의료서비스산업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과 관련된 산업(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 의료서비스산업에는 공급자인 병·의원, 소비자인 환자, 보험자인 건강보험이 삼각축을 형성하며, 연관산업으로는 제약과 의료기기산업 등이 존재
 - 광의의 의료산업은 제약, 의료기기도 포함
-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은 높은 진입장벽과 의료인에 의한 공급독점이 주요 특성
 -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인,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정부기관 외에는 허용되지 않음(의료법 제30조)¹⁾

1) 의료법 제30조: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자 ①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③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④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⑤ 정부투자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형태의 의료관련 법인 설립은 불가
- 자연인으로서 비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

2. 의료서비스산업은 개인사업체 위주로 구성

- 서울시 의료서비스산업은 98% 정도가 개인사업체 위주로 구성
 - 연도별 서울시 의료서비스산업에서 개인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대의 98% 이상으로부터 약간 하락했으나 여전히 98%에 가까운 비중을 유지하고 있음
 - 개인사업체 외에 회사이외의 법인 등이 2% 정도를 차지함

〈표 1〉 서울시 의료업 조직형태별 사업체수

(단위: 개)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합계	8,540	8,860	9,272	9,364	9,652	9,724	10,085
개인사업체	8,397	8,714	9,135	9,226	9,502	9,559	9,895
회사법인	24	22	27	12	26	20	21
회사이외의 법인	108	114	105	125	120	132	146
비법인단체	11	10	5	1	4	13	23
개인사업체 비율	98.3	98.4	98.5	98.5	98.4	98.3	98.1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10,683	11,263	11,890	12,492	12,843	13,393	13,838
개인사업체	10,493	11,023	11,576	12,199	12,572	13,115	13,552
회사법인	7	0	0	12	20	19	18
회사이외의 법인	167	237	302	272	243	255	264
비법인단체	16	3	12	9	8	4	4
개인사업체 비율	98.2	97.9	97.4	97.7	97.9	97.9	97.9

자료: 서울시지방통계청

3. 의료서비스산업의 성장률은 심하게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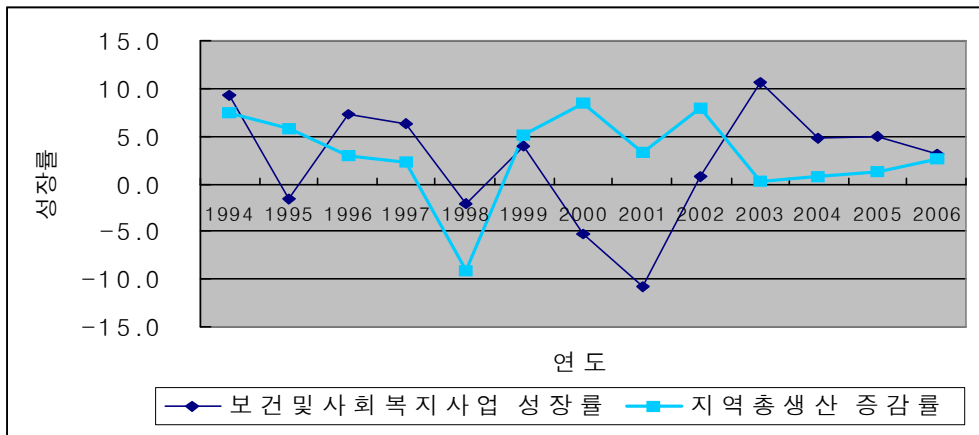
- 의료서비스산업¹⁾의 성장은 경기와는 무관하나 변동 폭이 심한 것으로 나타남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성장률과 지역총생산 증감률은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의료서비스산업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1994년에 7.5%, 1998년에는 -9.2%, 2000년도에는 8.4%, 2002년에는 8.0% 등 크게 변동하였음
 -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0.3%, 0.8%, 1.3%, 2.6% 등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임

〈표 2〉 지역총생산과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전년대비 성장률의 추이

(단위: %)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서울지역 총생산증가율	9.3	-1.6	7.3	6.2	-2.0	4.0	-5.4	-10.8	0.8	10.6	4.7	4.9	3.1
보건및사회복지사업성장률	7.5	5.7	2.9	2.2	-9.2	5.2	8.4	3.3	8.0	0.3	0.8	1.3	2.6

자료: 통계청, 국가정보통계포털 KOSIS



자료: 통계청, 국가정보통계포털 KOSIS

〈그림 1〉 지역총생산과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전년대비 성장률의 추이

1) 통계청에서는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대분류, 보건업은 중분류, 의료서비스산업은 소분류로 분류하고 있음

II. 의료서비스산업이 서울에 집중되는 추세는 완화

1. 의료서비스산업은 서울에 집중

-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분야의 지원 인프라는 서울시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
 - 의료서비스의 제공 주체인 의료기관의 서울시 집중도도 매우 높음
 - 서울시에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27.4%가 위치하며, 국내 최대의 대형병원이 대부분 서울에 위치해 실질적 비중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
 - 서울시는 금융자원의 집중도가 높고 각종 법률지원 기능도 우수하며 변리사의 92%와 벤처캐피탈의 대다수가 서울에 위치하여 산업으로 육성하기가 손쉬움
- 서울시에 집중되어 있는 의료기관 수에 비해 병상 수는 상대적으로 적음
 - 의료기관 수가 전체의 평균치(27.4%)를 크게 상회하는 치과병·의원(37.7%, 30.7%)의 서울 집중도가 높고 한의원(28.6%)의 서울의 집중도가 높게 나타났음

〈표 3〉 서울시 의료기관수 집중도(2007년)

(단위: 개소, %)

구분		전국	서울	비중
병·의원	종합병원	302	62	20.5
	요양병원	593	49	8.3
	병원	945	144	15.2
	의원	26,265	6,883	26.2
특수병원	결핵병원	3	1	33.3
	한센병원	1	0	0.0
	정신병원	107	4	3.7
치과병·의원	치과병원	151	57	37.7
	치과의원	13,280	4,083	30.7
한방병·의원	한방병원	138	29	21.0
	한의원	10,895	3,120	28.6
부속의원	부속의원	182	49	26.9
조산원	조산원	52	5	9.6
합계	계	52,914	14,486	27.4

자료: 보건복지통계연보

- 병상 수는 평균이 15.7%로 의료기관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치과의원(58.8%)과 치과병원(41.4%)이 가장 높은 집중도를 보였고, 다음은 결핵병원(39.8%), 종합병원(25.8%), 한방병원(23.4%)의 순으로 나타났음
 - 서울의 의료기관 수와 병상 수는 전국과의 불균형은 물론, 내부적으로도 병의원들 발전이 불균형을 이루는 상황임

〈표 4〉 서울시 의료기관 병상수 집중도(2007년)

(단위: 개, %)

구분		전국	서울	비중
병의원	종합병원	125,840	32,442	25.8
	요양병원	66,727	5,158	7.7
	병원	112,392	11,892	10.6
	의원	96,292	16,665	17.3
특수병원	결핵병원	1,373	547	39.8
	한센병원	1,000	0	0.0
	정신병원	36,714	2,001	5.5
치과병·의원	치과병원	249	103	41.4
	치과의원	17	10	58.8
한방병·의원	한방병원	8,245	1,930	23.4
	한의원	455	63	13.8
부속의원	부속의원	660	35	5.3
조산원	조산원	155	11	7.1
합계	계	450,119	70,857	15.7

자료: 보건복지통계연보

- 요양병원의 숫자가 급속하게 증가, 치과병원도 증가세 빠름
 -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병원 수와 병상 수는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요양 병원은 2003년의 3개소에서 2007년의 49개소로 증가하였고 병상 수도 355개에서 5,158개로 크게 증가하였음

- 최근 고령화 및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요양병원의 병원수 및 병상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요양병원의 병상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치과병원도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6년 전보다 2배가량 증가하였으며, 병상 수는 2배 넘게 증가하였음
- 현재 일반병원이 의료기관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병상수는 종합병원이 더욱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5〉 연도별 서울시 의료기관수(병원)

(단위: 개소)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222	233	255	263	277	310	346
종합병원	63	63	63	62	61	62	62
요양병원	0	0	3	5	10	26	49
병원	103	108	114	116	122	132	144
치과병원	25	28	32	42	48	52	57
한방병원	28	31	34	33	31	33	29

자료: 보건복지통계연보

〈표 6〉 연도별 서울시 의료기관 병상 수(병원)

(단위: 개)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40,437	44,484	45,245	45,547	46,385	49,574	54,073
종합병원	28,823	31,807	29,642	30,711	30,862	32,028	32,442
요양병원	0	0	355	720	1,057	2,891	5,158
병원	8,051	8,996	9,182	9,405	9,857	9,974	11,892
치과병원	42	41	40	82	81	97	103
한방병원	1,861	1,980	2,100	2,105	2,004	2,036	1,930

자료: 보건복지통계연보

- 의료기관 종사인력 집중도를 살펴보면 병원 종사자수는 서울에 28.1% 집중되어 있고, 의원·조산원 종사자수는 25.0% 집중되어 있음
- 의료기관의 종사인력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서울시의 집중도가 커서 지방과 서울의 인력불균형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남
- 병원, 의원·조산원에서 모두 치과의사, 한의사, 의사, 약사 등의 집중도가 특별히 높음

〈표 7〉 의료기관 종사인력(2006년)

(단위: 명, %)

구분		전국	서울	비중
병원	합계	163,943	46,004	28.1
	의사	35,184	11,847	33.7
	치과의사	2,490	954	38.3
	한의사	1,327	438	33.0
	조산사	880	188	21.4
	간호사	75,784	20,729	27.4
	간호조무사	19,583	4,260	21.8
	의료기사	23,696	6,184	26.1
	의무기록사	2,168	489	22.6
	약사	2,831	915	32.3
의원·조산원	합계	186,975	46,815	25.0
	의사	30,891	7,926	25.7
	치과의사	15,087	4,562	30.2
	한의사	11,429	3,264	28.6
	조산사	280	50	17.9
	간호사	15,083	4,045	26.8
	간호조무사	73,883	17,189	23.3
	의료기사	40,268	9,760	24.2
	약사	54	19	35.2

자료: 보건복지통계연보

2. 의료서비스산업의 서울 집중도는 최근 완화

- 서울의 의료기관 집중도에서 의원·조산원의 집중도가 병원보다 큼
 - 병원의 집중도는 2001년의 19.6%로부터 2007년 15.4%까지 꾸준하고 안정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내며 서울의 집중도가 많이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
 - 의원·조산원의 집중도는 2001년의 28.6%로부터 27.9%까지 온건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집중도가 병원보다 크지만 감소세는 병원보다 작게 나타남

〈표 8〉 의료기관수(병원) 집중도

(단위: 개소,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국	1,134	1,268	1,425	1,498	1,636	1,895	2,240
서울	222	233	255	263	277	310	346
비중	19.6	18.4	17.9	17.6	16.9	16.4	15.4

자료: 보건복지통계연보

〈표 9〉 의료기관수(의원·조산원) 집중도

(단위: 개소,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국	39,153	42,761	44,347	45,880	47,930	49,391	50,674
서울	11,213	11,814	12,144	12,691	13,067	13,627	14,140
비중	28.6	27.6	27.4	27.7	27.3	27.6	27.9

자료: 보건복지통계연보

- 서울의 의료기관 병상수는 의료기관 수와 다르게 병원의 서울 집중도가 의원·조산원 보다 높게 나타남
 - 병원의 병상수 서울 집중도는 19%대로부터 15%대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병원 수와 비슷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의원·조산원의 병상수의 서울 집중도는 16%~17% 사이에서 적은 변동 폭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음

〈표 10〉 의료기관 병상수(병원) 집중도

(단위: 개,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국	210,970	230,353	243,547	260,405	279,104	314,082	352,540
서울	40,437	44,484	45,245	45,547	46,385	49,574	54,073
비중	19.2	19.3	18.6	17.5	16.6	15.8	15.3

자료: 보건복지통계연보

〈표 11〉 의료기관 병상수(의원·조산원) 집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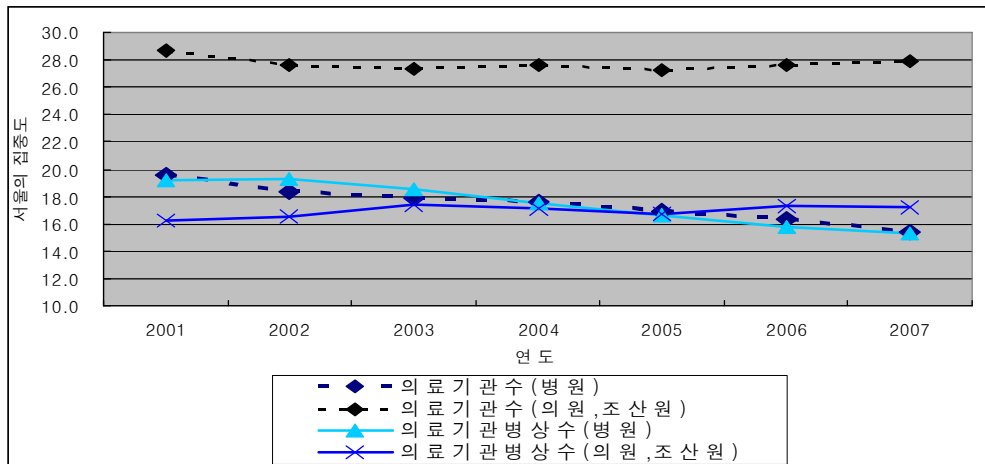
(단위: 개,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국	77,982	85,736	97,441	92,884	95,667	96,499	97,579
서울	12,704	14,206	16,954	15,928	15,973	16,693	16,784
비중	16.3	16.6	17.4	17.1	16.7	17.3	17.2

자료: 보건복지통계연보

○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의원·조산원 수는 소유하고 있는 병상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 병원 수와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병상 수는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의원·조산원 숫자는 보유하고 있는 병상 수에 비해 훨씬 초과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통계연보

〈그림 2〉 의료기관 수와 병상 수 서울의 집중도

○ 서울의 의료기관 중 병원 종사인력의 집중도는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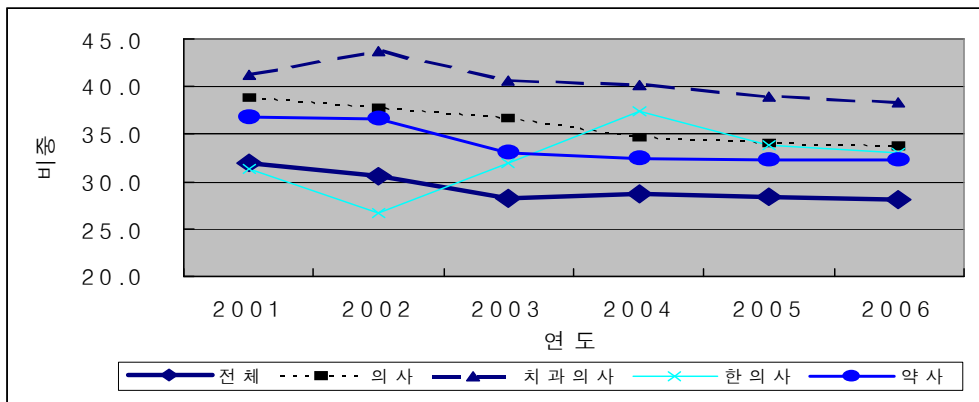
- 서울의 병원 종사인력은 2001년 전국의 32%로부터 2006년의 28.1%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집중도가 평균 수준보다 높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을 그림에서 살펴보면 종사인력별 서울 집중도는 한의사를 제외하고 모두 안정적인 하락세를 보임
- 한의사의 서울 집중도는 2003년, 2004년에 연이어 높아졌다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

<표 12> 의료종사자 서울의 집중도(병원)

(단위: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32.0	30.6	28.2	28.7	28.4	28.1
의사	38.9	37.7	36.6	34.6	34.0	33.7
치과의사	41.3	43.8	40.6	40.2	38.9	38.3
한의사	31.3	26.7	32.0	37.4	33.7	33.0
조산사	23.3	22.0	20.3	22.0	21.2	21.4
간호사	30.6	29.1	25.6	27.3	27.4	27.4
간호조무사	24.7	22.7	21.3	23.4	22.8	21.8
의료기사	31.7	29.7	27.4	27.2	26.8	26.1
의무기록사	24.6	22.3	21.8	22.8	23.0	22.6
약사	36.7	36.7	33.0	32.4	32.3	32.3

자료: 보건복지통계연보



자료: 보건복지통계연보

<그림 3> 의료종사자 서울의 집중도(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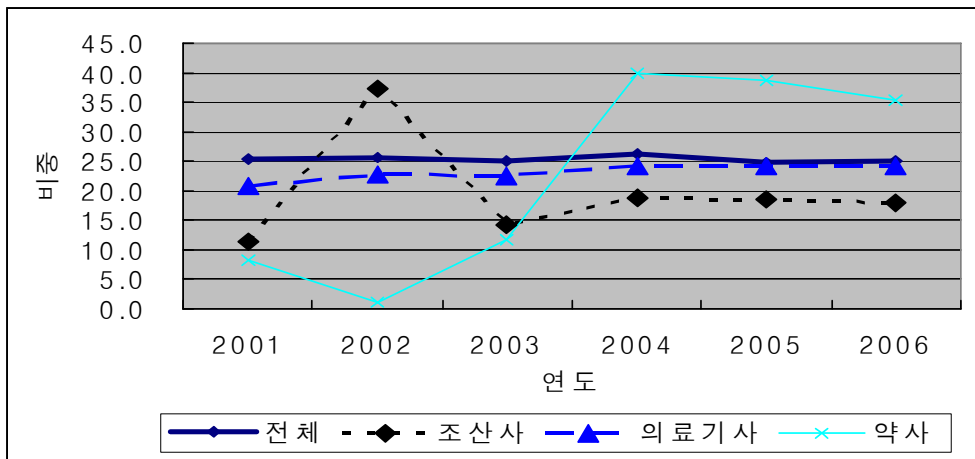
- 서울의 의료기관 중 의원·조산원의 의료종사자 서울의 집중도 역시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
 - 전체적으로 온건한 감소추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약사와 조산사의 집중도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약사는 2003년, 2004년에 서울의 집중도가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조산사가 2002년에 크게 증가하였다가 이듬해에 다시 하락하는 등 집중도 변동이 큼

〈표 13〉 의료종사자 서울의 집중도(의원·조산원)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25.4	25.6	24.9	26.2	24.8	25.0
의사	26.8	26.4	26.9	25.4	25.4	25.7
치과의사	32.2	30.6	30.2	30.8	30.5	30.2
한의사	30.6	28.2	27.8	28.3	28.0	28.6
조산사	11.4	37.2	14.3	18.7	18.5	17.9
간호사	28.6	34.1	27.4	26.2	26.0	26.8
간호조무사	24.2	23.6	23.3	26.3	23.2	23.3
의료기사	20.8	22.8	22.5	24.3	24.1	24.2
약사	8.3	1.1	11.8	40.0	38.6	35.2

(단위: %)

자료: 보건복지통계연보



자료: 보건복지통계연보

〈그림 4〉 의료종사자 서울의 집중도(의원·조산원)

Ⅲ. 의료서비스산업 고용창출효과 크고 시장규모 확대 전망

1. 의료서비스의 산업화는 아직 부진한 상태

- 국내 의료산업은 한국경제의 성장과 고용창출 측면에서 아직까지 역할이 미흡¹⁾
 - 의료서비스산업의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1990~2005년 GDP에서의 비중은 연평균 6.0%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절반에 불과²⁾(GDP 대비 국민의료비지출 연평균(1990~2005년): 미국 15.3%, 프랑스 11.1%, 캐나다 9.8%, 영국 8.3%, 일본 8.0%)
 - 국내 경제에서 의료서비스산업과 제약산업 비중은 GDP 대비 각각 6%와 1.6%(2005년 기준)에 불과해 OECD 30개국 중 최하위권
 - OECD 국가 중 1인당 GDP가 3만 달러대인 12개 국가의 평균 의료서비스산업 비중은 9.4%이고 4만 달러대인 4개 국가의 평균 비중은 10.9%임
 - 인구 천명당 의사수와 간호사수도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

〈표 14〉 의료산업의 산출과 고용지표(2005년)

	1인당 의료비	GDP 대비 산업비중	천명당 의사수	천명당 간호사수
	\$	%	명	명
한국	979	6.0	1.6	1.9
1인당 GDP 3만불대 국가평균	3,377	9.4	3.1	9.3
1인당 GDP 3만불대 국가평균	5,022	10.9	3.2	11.2

자료: OECD Health Data 2007

2. 고용창출효과 크고 부가가치 높아 육성 절실

- 의료서비스산업은 1인당 부가가치가 매우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차세대 신성장 동력 산업

1) 현대경제연구원, “국내 의료클러스터 현황과 국제경쟁력”, 2008

2) 자료: OECD, OECD Health Data 2007, 2007 (일본은 1990~2004년 연평균 성장률)

- 생산유발계수는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우 1.803으로 전산업평균 1.659를 상회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유발계수도 0.857로 전산업 평균(0.714)을 상회
 - 취업유발계수¹⁾도 전산업평균 12.2명보다 높은 16.3명을 나타내고 있으며, 제조업(4.9명²⁾)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3배 이상
 - 부가가치 비율³⁾(2000년 기준)도 제조업(27.4%)에 비해 의료서비스 산업은 48.7%⁴⁾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서울시 의료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수 추이를 살펴보면 종사자수는 전체 산업의 3%대를 나타내고 있음
- 의료서비스산업을 포함한 보건및사회복지사업 비중은 전체 산업에서 2%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종사자수 비중이 산업 비중보다 높다는 것은 의료서비스산업이 고용창출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15〉 서울시 의료서비스업 종사자수 비중

(단위: 명)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전체 산업	3,974,457	3,612,150	3,874,597	4,045,537	3,758,459	3,378,615	3,367,652
의료 서비스업	75,764	78,970	85,599	92,441	97,551	94,111	91,950
비중	1.9	2.2	2.2	2.3	2.6	2.8	2.7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 산업	3,574,824	3,763,794	3,805,462	3,791,943	3,732,230	3,843,010	3,894,666
의료 서비스업	98,728	104,882	113,724	118,196	124,592	132,224	138,561
비중	2.8	2.8	3.0	3.1	3.3	3.4	3.6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1) 취업유발계수: 생산액 10억원당 투입되는 고용자수

2) 전국경제인연합회, 「의료서비스산업 현황 및 제도개선 과제」, 2003

3) 부가가치율: 의료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를 국내 총 의료서비스산출액으로 나눈 비율

4) 한국은행, 「2000년 산업연관표」, 2003

〈표 16〉 서울시 보건및사회복지사업 비중

(단위: 십억원)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전체 산업	111,838	120,246	127,111	130,859	133,743	121,450	127,750
보건및사회복지사업	2,780	3,039	2,991	3,209	3,410	3,341	3,475
비중	2.5	2.5	2.4	2.5	2.5	2.8	2.7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 산업	138,492	143,088	154,503	154,944	156,224	158,304	162,475
보건및사회복지사업	3,289	2,934	2,958	3,271	3,426	3,593	3,705
비중	2.4	2.1	1.9	2.1	2.2	2.3	2.3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3. 지난 10년간 의료서비스산업 시장규모는 3배 이상 확대

-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 및 욕구 증대와 건강 보험의 적용인구 확대로 의료서비스산업의 시장규모가 빠른 속도로 성장
 - 2005년 시장 규모는 GDP의 6.0%(48.6조원)으로 1994년(14.8조원)에 비해 3.3배 증가
 - 지난 10년간(1994~2004년) 의료서비스산업의 성장률은 연평균 11.3%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미국 6.8%, 영국 7.3%, 독일 3.6%, 프랑스 5.0%, 캐나다 5.8%, 일본 2.4%¹⁾)
 - 지난 10년간 1인당 의료소비액 33만원(1994년)에서 90만원(2004년)으로 3배 증가
 - 2005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PPP, 미달러 기준)은 1,318달러로 2000년 780달러에 비해 1.7배가 증가, OECD 회원국의 평균 1인당 국민 의료비 지출은 2,759달러로 2000년(1,982달러)에 비해 1.4배 증가²⁾
- 향후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 소득수준의 지속적 향상 등으로 의료서비스 산업의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향후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시장 규모를 과거 20년간의 추세선을 이용하여 단순 예

1) 자료: OECD, OECD Health Data 2006, 2006 (일본은 1990~2003년 연평균 성장률)

2) 자료: OECD, OECD Health Data 2007, 2007

측하면, 2010년에는 약 68조원에 이를 전망¹⁾

- 또 다른 연구에서는 2010년 의료서비스산업 규모를 74조원으로 예상²⁾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울시 진료실적을 살펴보면 지급건수와 내원일수, 진료일수 등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2000년에 비해 2005년의 지급건수, 내원일수, 진료일수, 총진료비 등은 모두 2배 이상 증가하였음

<표 17> 서울시 진료실적

구분	단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지급건수	천건	60,829	123,717	129,557	136,130	140,554	169,931
내원일수	천일	114,030	213,495	220,650	229,095	232,409	239,302
진료일수	천일	419,265	748,643	805,488	870,718	936,365	1,015,255
총진료비	백만원	3,195,283	4,632,179	4,966,556	5,512,330	5,947,707	6,535,922
공단부담금	백만원	2,127,010	3,303,916	3,498,306	3,865,902	4,218,158	4,694,053
건당진료비	원	52,529	37,442	38,335	40,493	42,316	38,462

자료: 건강보험공단 통계정보시스템

4. 고령화로 향후에도 시장 급성장 전망

○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고령화³⁾ 추세

- 인구 고령화는 만성질환 및 기능저하 노인수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로 의료서비스요양에 대한 수요를 크게 상승시킬 것임(OECD국가의 GDP 대비 의료비지출비율: 5~14%)

1) 삼성경제연구소,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와 과제”, 2007

2) 김창엽, “공공병원 확충방안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4

3)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7%이상, 고령 사회(Aged society)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14% 이상,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는 노인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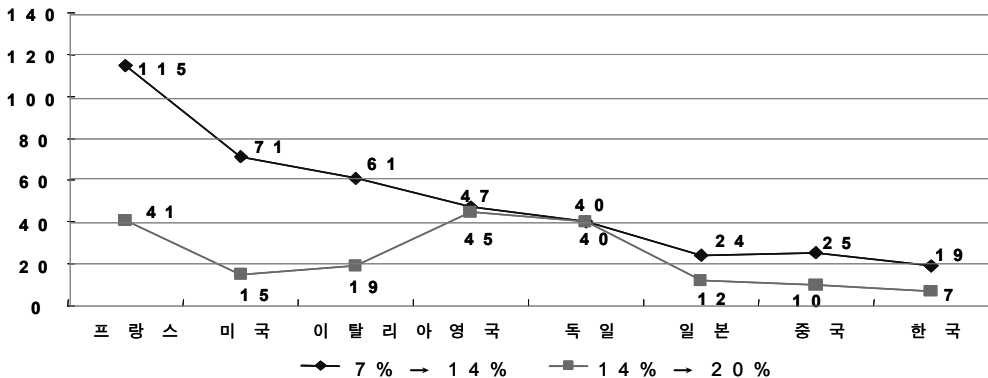
<표 18> OECD 주요 회원국의 고령화 추세

		도달년도			증가소요년수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고령사회→초 고령사회
중국		2001	2026	2036	25	10
OECD 주요국가	일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독일	1932	1972	2012	40	40
	영국	1929	1976	2026	47	50
	이탈리아	1927	1988	2007	61	19
	미국	1942	2015	2036	73	21

자료;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인구통계자료집, 2006; 한국은행, 중국의 고령화 진전 및 향후 전망, 해외경제정보, 2006.12. 재구성

○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진행

- 우리나라는 2005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현재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2018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
-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예상에 따라 의료시장의 내수 규모가 급팽창할 전망
- 또한 고령화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으로부터의 잠재 고객군도 향후 급증할 전망(중국의 고령인구는 2020년경 2억4천만명을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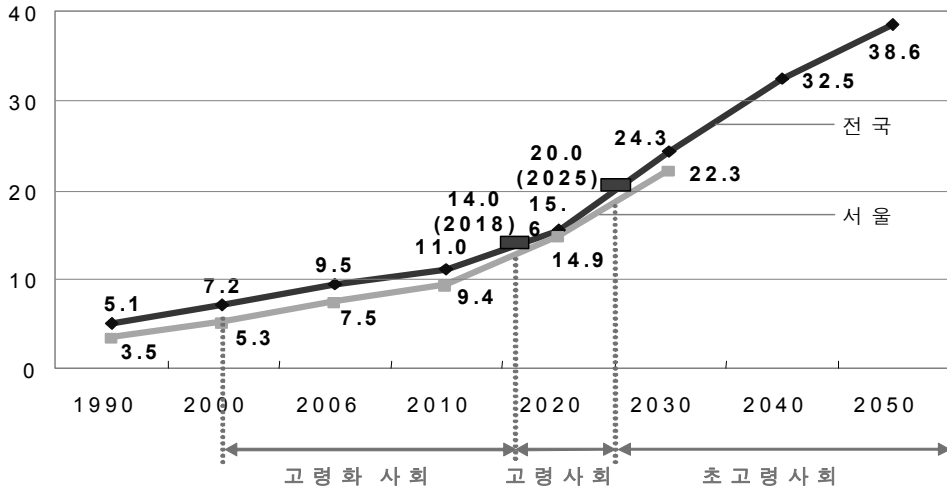
자료;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인구통계자료집, 2006; 한국은행, 중국의 고령화 진전 및 향후 전망, 해외경제정보, 2006.12. 재구성

<그림 5> OECD 국가 고령화 소요기간 비교

○ 서울의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는 급속히 증가할 전망

- 노령화 인구의 구성비는 2007년에는 7.3%이지만 2018년에는 14%, 2025년에는 20%까지 증가하여 현재의 3배에 달할 전망이다

(고령인구 비중)



<그림 6> 고령인구 증가 추이

5. 서울은 의료서비스산업 기술 경쟁력 보유

-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잠재력과 상당한 기술경쟁력을 보유
 - 양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병원 수는 지난 10년간 5~6%씩 증가하였으며, 2003년 의료서비스 산업의 총자산증가율은 7%로 제조업 또는 타 서비스업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
 - 또한 컨퍼런스보드(Conference Board of Canada)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OECD 국가들의 보건의료체계 평가결과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 5위에 해당¹⁾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6 보건산업백서」, 2006

〈표 19〉 OECD 국가들의 보건의료 체계 평가 순위

순위	국가	순위	국가	순위	국가
1	일본	9	오스트리아	16	벨기에
2	이태리	10	노르웨이	18	영국
3	프랑스	11	아이슬란드	18	독일
4	스페인	11	룩셈부르크	20	포르투갈
5	한국	11	네덜란드	21	덴마크
6	스위스	11	캐나다	21	아일랜드
7	스웨덴	15	호주	23	미국
8	핀란드	16	그리스	24	폴란드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6 보건산업백서」, 2006

- 의료기술측면에서는 선진국 대비 약 80%의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암, 심장질환 등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
- 특히 최근 「OECD Health Data 2007」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자원수준은 OECD평균보다 높은 수준
 - 인구 천명당 총병상수: 한국 7.9 OECD 5.6
 - 의료기술: 인구 백만명당 CT스캐너 - 한국 32.2, OECD 20.6
인구 백만명당 MRI 장비 - 한국 12.1, OECD 9.8

IV. 서울은 의료와 IT·BT의 융합을 통한 특성화 필요

- IT, BT 등 연관산업과의 융합화를 위한 노력 필요
 - 서울시가 선도하고 있는 IT 기술을 이용하여 U-Health 산업을 육성하여 유 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 환자모니터링 및 진료를 가능토록 추진
 - BT 기술을 의료서비스에 접목하여 선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별화된 의료 시장 신규 개척 필요
 - 세포 및 유전자 치료를 포함한 바이오 치료를 개발하여 화학합성 약품을 이용한 기

존의 치료방식을 대체하는 항체 및 세포 치료제를 생산하여 개인의 유전적 특성에 맞춘 치료기법 개발

- 피한방울로 생체단백질을 추출하여 인체 내의 모든 질병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바이오칩 및 바이오센서 등의 전자의료기기 분야 개발

○ R&D 투자 지원 및 해외로의 새로운 시장 개척 및 확대를 위한 국제마케팅 지원

- 관광 및 휴양과의 연계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분야인 피부 성형 분야로의 해외 마케팅 지원과 향후 선택적 치료, 중증 치료 및 해외 병원으로의 진출 확대
- 2005년 기준 해외 진출한 의료기관은 중국 5개, 베트남 5개, 미국 3개, 러시아 1개, 싱가포르 1개 등 총 15개¹⁾
- 적극적인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광고규제 완화 및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알선규제 완화와 외국환자에 대한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필요

1)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2006

참고문헌

- 김창엽, “공공병원 확충방안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4
- 보건복지통계연보
- 삼성경제연구소,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와 과제”, 2007
- 서울지방통계청
- 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인구통계자료집, 2006
- 전국경제인연합회, 「의료서비스산업 현황 및 제도개선 과제」, 2003
- 통계청, 국가정보통계포털 KOSIS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6보건산업백서」, 2006
- 한국은행, 「2000년 산업연관표」, 2003
- 한국은행, 중국의 고령화 진전 및 향후 전망, 해외경제정보, 2006.12
- 현대경제연구원, “국내 의료클러스터 현황과 국제경쟁력”, 2008
- OECD, OECD Health Data, 2006
- OECD, OECD Health Data, 2007